

# 국방부 지원 「특화연구센터」 3개 大學에 개설

— 軍과 産·學·研 협동체제로 民·軍 共用 기술 개발 활성화 기대 —



**국방** 과학기술 「특화연구센터」가 국내 3개 대학에 국방부 지원으로 개설되었다.

지난 12월 15일 서울대에 자동제어분야를 시작으로, 16일 한국과학기술원에 전자광학분야, 20일 포항공대에 전자과특화연구센터가 잇달아 개설되어 앞으로 민과 軍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미래 소요 기초기술을 집중개발할 계획이다.

국방과학기술 현대화를 위한 이번 조치로 국방부는 3개 특화연구센터에 이미 연구에 착수한 총 35개 과제에 2003년까지 총 300억 원 규모를 지원하게 된다.

지금까지 국방연구개발은 철저한 보안시설이 갖춰진 가운데 일부 제한된 요원만이 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 탈피, 연구현장 자체를 대학내에 설치하기 까지는 심도높은 정책검토가 있었다.

이번 특화연구센터 개설로 기초기술기반을 튼튼히하여 선진국의 기술패권주의를 극복하고, 대학의 우수한 연구인력이 국방기술 개발에 관심을 갖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특화연구센터가 설치된 대학을 중심으로 연구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産·學·研의 다양한 우수인력과 기술정보, 연구장비 등 국가과학기술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된다.

앞으로 목표로 하는 기술은 방산장비개발과 민수분야 제품개발에 동시 적용가능한 고부가가치 民·軍 共用기술을 중심으로 연구할 계획이며, 연구관리 측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예산의 대학별 일괄 균등 배분을 지양해 꼭 필요한 연구과제를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설치대학 교수 중에서 선발된 센터 대표에 최대한의 권한을 위임해 창의성을 극대화하고 3년 주기로 종합 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일반에 공개함으로써 참여 연구원들에 자부심을 부여함과 동시에 기술개발 정도를 확인하는 효과적인 평가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번에 설치한 3개 센터의 운영관리기법을 토대로 '97년부터 7~8개의 특화연구센터를 연차적으로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 한국軍 평시 작전통제권 44년만에 되찾아...

— 부대이동, 훈련 및 교리, 경계, 초계활동 등 권한 행사—

**한미** 연합사령부가 행사해오던 작전권 가운데 평시작전권이 지난 12월 1일 한국군으로 돌아왔다.

그동안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전시는 물론 평시에도 미군 장성인 한미연합사령관이 가지고 있었으며, 2군,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를 제외한 한국군병력을 훈련 목적으로 이동시키려 할 때에도 일일이 미군의 통제를 받아왔다.

그러나 이번 평시 작전권 환수로 한국군은 독자적인 전력증강 및 훈련계획, 부대배치 및 작전계획과 함께, 한국함대의 제3국과의 군사교류, 해양지원, 어로보호활동 등을 위해 연합사 작전구역을 벗어날 때도 사전 협의를 거칠 필요가 없게 됐다.

또한 제3국의 항공기나 함정이 적법한 절차없이 우리 영역을 침범할 때에도 독자적인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평시라고 해서 모든 작전권한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독수리훈련, 팀스 피리트 훈련 등 한미 연합훈련, 신작전계획 5027 수립, 한미 연합 공동교리 발전, 정보수집관리, 정전관련업무 등은 韓美연합사령관이 계속 권한을 갖도록 한미간에 합의되었다.

軍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戰·平時 구분 문제와 관련해 평시에서 전시로 전환될 때 한국군의 작전권이 한미연합사령관에게 넘어가는 시점이 너무 빨라 엄밀한 의미의 평시작전권이라 볼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내에 진정한 조국방위를 위해 전시작전권 환수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 럭키금성상사, 러시아와 헬기 합작법인 설립

— 아시아 판매 위해 총 60만불 투자, 향후 자체 생산—

**럭키** 금성상사는 러시아 쿠메르타우 항공사와 한국에서의 헬기 조립생산에 합의하고, 아시아 판매를 위해 싱가포르에 합작법인 「카모브-럭키골드스타」를 설립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KA-32T(육상용)와 KA-32C(해상용)헬기 부품을 국내로 반입해 조립 생산하는 한편 기술축적이 되는 대로 자체생산에 들어가기로 했다.

럭키금성상사는 이에 앞서 92년말



쿠메르타우 항공사의 헬기 2대를 도입하여 산림청에 공급했으며 지난해 7월 헬기 신기종 개발 및 판매에 관한 계약을 맺은바 있다.